

# 경쟁전략 이론으로서의 기업이론: 역량기반 관점과 진화적 관점의 통합

조 필 규\*

## 요약

경제학이 전략연구 분야에서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학은 진화주의적 관점에 기초해서 역량기반 이론의 연구 성과를 기업이론으로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량기반 이론은 내생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 전략을 분석한다. 또한 진화적 기업이론은 기업을 역사적 실체로 간주함으로써 기업의 이질성과 학습 동학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역량기반 관점과 진화주의적 관점의 통합을 통해서 기업이론은 핵심 역량의 축적 과정과 그에 따른 경쟁 우위의 창출 및 유지 과정을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기업의 전략적 과제는 단지 주어진 자원을 배치하는 문제만이 아닌 조직적 학습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자원을 축적하는, 즉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 간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주제분류 : B030107

핵심 주제어 : 경쟁전략, 진화적 기업이론, 역량기반 관점

## I. 서 론

기업의 전략에 대한 문제는 주로 경영학의 연구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반면에 경제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신고전과 경제학이 경제학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동안 신고전과 경제학의 기업이론은 그 분석의 목적상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 혹은 시장을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데 기인한

\*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e-mail: jopk@hanbat.ac.kr

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경제학은 순수한 개념적 모형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전략 분야에서 이론적 전제가 되는 기업의 이질성(heterogeneity)이라는 문제를 상대적으로 간과해 왔다는 사실이다. 표준적인 미시 가격이론은 산업 전체의 균형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산업 내에서의 모든 기업은 동일한 생산기술과 비용 조건, 그리고 동일한 시장수요에 직면해 있다고 가정되어 왔고, 이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기업의 이질성이라는 문제는 다룰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은 전략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경제학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요인 때문에 기업의 경쟁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 간의 수익률 차이가 유지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현실의 기업들 간에 존재하는 이질성이라는 문제를 전제해야만 한다.

이 점에서 역량기반 관점(competence-based perspectiv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량기반 관점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내생적 성장이라는 관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개념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야만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지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기업의 경쟁전략을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 간의 균형(balance)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단지 진입장벽을 구축함으로써 우월한 시장 지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파악하는 산업조직론에서의 균형 분석 및 경쟁 전략을 정태적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모두 비판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역량기반 관점은 단일한 이론적 체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양한 경제이론과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역량기반 관점의 장점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이론과 통합되는 것이 좋은가하는 점이다. 즉 통합의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려 속에서 본 논문은 기업의 경쟁 전략을 이해함에 있어서 경제학에서의 기업이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밝히는 동시에 기

업의 경쟁 전략을 연구함에 있어서 역량기반 관점이 갖는 중요성을 밝히고, 또한 경제학이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보다 유의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기반 이론을 진화주의적 관점에 기반하여 기업이론에 적극적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경제학, 특히 기업이론이 갖고 있는 전략이론으로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면서 기존의 경제이론들의 기업에 대한 논의를 개괄하고, 이로부터 전통적인 산업조직론과 신제도학과 기업이론의 경쟁 전략에 대한 관점을 추론한다. 제Ⅲ장에서는 역량기반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과 이론적 과제를 정리하고, 전략 연구 분야에서 역량기반 관점이 갖는 중요성을 밝힌다. 그리고 제Ⅳ장에서 진화적 기업이론이 갖는 역량기반 이론과의 공통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서 기업이론이 진화주의적 관점에 기초해서 역량기반이론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전체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 Ⅱ. 전략이론으로서의 기업이론의 의미와 기존의 논의들

Rumelt *et al.*(1994)에 따르면, 기업의 전략적 행동에는 기업의 목표선별, 생산 제품 및 서비스의 선택, 정책의 설계, 생산물의 범위와 다각화 수준의 선택, 조직구조 및 관리체계 설계 등이 포함되며, 이들 행동의 통합이 기업의 전략집합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기업의 자원조달 방식, 즉 자원을 내부적으로 생산할 것인지 시장을 통해 외부적으로 조달할 것인지와 같은 전략적 문제와 관련된다. 또한 조직구조는 기업이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를 설계하는 문제 역시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선택의 하나이다.

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기업의 전략적 분석은 경제학에서의 기업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Foss (1999)는 전략이론으로서의 기업이론은 다음의 네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규정한다. 첫째는 시장경제에서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의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는 기업의 경계, 즉 어떤 거래는 내부적으로 조정되는 데 비해서 어떤 거래는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셋째는 내부조직, 즉 기업마다 조직구조와 관리체계가 상이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넷째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요인을 해명하는 것이다.

이상의 전략 이론으로서의 주제는 기존의 기업이론들이 해명하고자 하는 문제들과 상당부분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신고전과 경제학을 포함해서 기존의 경제학 이론들이 기업의 경쟁 전략을 명시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각 경제이론들이 전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관점과 논의로부터 이들 이론이 기업의 경쟁 전략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지를 추론해볼 수 있다.

신고전과 경제학에서 소비자와 기업은 모두 자유로운 시장 참여자라는 의미에서 대칭적인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신고전과 경제학에는 소비자와는 달리 기업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은 생산물 시장 및 생산요소 시장에 대한 분석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고전과 미시이론은 산업의 균형 상태를 설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신고전과 경제학에서 기본적인 분석의 수준은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독립적인 설명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관점은 경제학에서 핵심적인 경제주체로서의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이 전통적인 신고전과 미시이론에는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신고전과 미시이론에서는 개별 기업의 전략적 행동에 대한 유의미한 함의를 찾기 힘들다.

1) 신고전과 경제학에서 소비자의 행동은 그의 효용함수로 대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행동은 생산함수로 표현된다. 그러나 기업은 소비자와 달리 단일한 행위주체가기보다는 독립적인 행위주체들로 구성된 집합적 주체이다. 따라서 기업을 이윤극대화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단일한 의사결정 주체로 간주될 수 없다. 그렇지만 표준적인 신고전과 미시경제이론에서 기업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기업이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단일한 행위주체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관점은 신고전과 경제학의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와 부합하지 않는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따르면, 경제이론에서 개인들의 집합체, 예를 들면 가계와 기업, 국가 등을 다루는 경우는 있지만 분석의 궁극적인 단위는 개인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신고전과 경제학에서 公衆(public)은 이해관계를 갖는 실체일 수 없으며, 따라서 기업 역시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전과 미시이론에서 이러한 관점이 용인되고 있는 것은 산업에서의 균형 상태를 설명한다는 분석의 목적 때문이다.

한편 1970년대까지 경영전략 분야에서 경제학은 산업조직론에서의 구조-성과 패러다임을 의미했다. 예들 들어 초과이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입장벽이나 담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산업조직론의 개념들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전략 연구에서 이러한 산업조직론 개념을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은 산업조직론은 기업의 경쟁 우위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산업조직론에서 기업의 경쟁 우위는 시장지배력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된다. 예컨대 Porter(1980)는 Bain(1956)의 진입장벽 모형에 근거해서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초과이윤의 원천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전략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장에서의 지위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의 문제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기업의 경쟁 우위는 기업이 진입장벽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업의 전략이 외부적 요인으로 국한되고 있다. 즉 그의 전략에 대한 관점은 고전적인 SWOT 분석 체계에서 강점(strength)/약점(weakness) 보다는 상대적으로 기회(opportunity)/위협(threat)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조직론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나 다각화 방안, 혹은 기업 간의 장기적인 수익률 차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를 갖는다. 산업조직론 역시 분석의 기본적인 수준은 산업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기업을 암실(black box)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신고전파 이론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핵심 역량(core competence)이라는 측면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물론 단기적 사업 전략에 있어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적 자원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단기적 전략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러한 관점이 용인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장기적 혹은 동태적 성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생산적 자원과 핵심 역량의 축적 메커니즘 및 이 점에 있어서의 기업 간 차별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산업조직론은 여전히 전략이론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 전략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의 기업관에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실

제로 대리인 이론이나 거래비용 이론 등과 같은 소위 신제도학과 기업이론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관의 수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신제도학과 기업이론들의 전략에 대한 견해 역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신제도학과 기업이론은 계약적 관점(contractarian perspective)에서 기업을 분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과 달리 신제도학과 기업이론은 공통적으로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 개별 기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이들 이론은 개별 기업의 행동 자체를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업 그 자체가 아닌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행위자가 분석의 단위로 상정된다. 이는 신제도학과 기업이론에서 기업은 더 이상 단일한 생산의 주체 혹은 이윤극대화라는 단일한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의사결정 주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이들 이론은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이질적인 행위 주체들의 효용극대화 행위의 결과로 기업의 행동을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다양한 이해집단들 간의 계약적 관계를 갖고 있는 법률적 인격체라는 것이다. 신제도학과 기업이론은 이윤극대화라는 단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의사결정 단위로서의 기업이라는 관점 대신 요소 공급자들 간의 계약적 관계망이라는 관점을 도입한다.

이러한 견해는 사실상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더 이상 단일한 목적함수를 가진 의사결정 단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기업의 과도한 인격화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은 요소 공급 주체들 간의 복잡한 계약망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고, 이들의 효용극대화 행위라는 균형 과정의 결과로서 기업의 행위를 분석한다. Georgious(1973)의 표현을 빌면, 신고전파 경제학의 '목적 패러다임(goal paradigm)'이 '교환 패러다임(exchange paradigm)'으로 대체된 것이다.

우선 거래비용 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은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라는 인식론적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제한적 합리성은 전통적인 극대화 합리성(maximization rationality)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별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목적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제한적으로만 합리적이다.

Williamson(1985)에 따르면, 기업은 제한적으로 합리적이고 기회주의적인(opportunistic) 행위주체들이 아주 높은 불확실성과 자산 특정성(asset specificity)으로 특징지어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출현하는 지배 구조(governance structure)라는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계약 당사자들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각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가를 상술하는 상황의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거나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아주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해법은 불완전한 계약, 즉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취해야만 하는가를 상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계약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만 하는지를 사전적으로 상술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거래비용 이론은 본래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Coase, 1937). 즉 거래를 조직하는 데에 필연적으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모든 생산 활동이 시장에서 조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필요한 생산요소를 시장에서 구매할 때의 비용과 내부적으로 생산할 때의 비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기업의 효율적인 경계가 결정된다. 따라서 거래비용 이론의 관점에서 경영 전략은 거래를 조직하는 비용을 절약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즉 경영 전략은 기본적으로 생산-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업의 효율적인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어떤 활동을 내부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혹은 외부에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한편 거래비용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본질은 위계(hierarchy)를 수반하는 고용계약이며, 이는 시장에서의 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고용인들은 자신들이 수행해야만 하는 임무를 고용주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수용 가능한 영역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통상적인 시장 계약과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을 권위적 관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거래비용 이론은 순수한 시장조정으로서의 기업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이나 재산권 이론(property theory) 등과 같은 다른 신제도학과 기업이론과는 구별된다.

Alchian and Demsetz(1972) 등의 재산권 이론이나 Jensen and Meckling(1976) 등의 대리인 이론은 기업의 본질이 권위적 관계를 수반하는 고용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다. 즉 고용 계약이나 통상적인 시장 계약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sup>2)</sup> 또한 대리인 이론이나 재산권 이론은 여전히 전통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의 극대화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합리성을 수용하는 거래비용 이론과는 차이점을 갖는다. 이들 이론에 따르면, 경쟁적 시장은 계약 체결 이후에 이기적인 계약 당사자들이 체결된 계약 조건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즉 재산권 이론과 대리인 이론에서는 완벽하고 포괄적인 계약을 통해서 보편적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리인 이론과 재산권 이론에서는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설계하는 것이 기업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영자의 역할은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일련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업 전략의 핵심은 통제의 필요성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들 이해관계자들 간에 양립가능한 유인체계(incentive system)를 설계하는 것이다.

물론 재산권 이론이나 대리인 이론에서 기업이 이윤극대화 행위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Alchian(1950)에 따르면, 이윤극대화 가정은 완전 정보나 완전예측이 전제될 때에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개별 기업들이 이윤 혹은 기대수익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론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인 기업들이 선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Alchian and Demsetz(1972)는 자본주의적 기업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이윤이 자본가에게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전유가능한 준지대(appropriable quasi rent)의 일정 부분을 취하고자 하는 개별 요소 소유주들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도덕적 해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식회사라는 기업의 계약구조가 경영자의 과도한 재량이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대표적인 기업 형태로 자리 잡을 수

2) 그러나 이후 Alchian(1987)과 Demsetz(1988)는 기업의 제도적 특성이 전적으로 단기 현물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업의 특징적 속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있었던 이유는 주식시장이나 경영자 시장에 의해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Jensen and Meckling, 1976; Fama, 1980).

이처럼 시장의 경쟁 과정을 통해서 효율적 기업이 선별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진입장벽 등과 같은 수단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진입장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기업들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그 경계와 활동의 범위는 전적으로 기업의 효율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업의 효율성이 증대되면 그 기업은 성장할 것이고, 반대로 효율성이 저하되면 이전에 달성했던 경쟁 우위는 점차 사라져 마침내 쇠퇴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거래비용 이론 역시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Williamson(1991)에 의하면, 기업의 경쟁 우위에서 효율성이라는 문제가 시장지배력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거래비용 이론은 경쟁 전략의 문제를 시장지배력으로 파악하는 Porter(1980)의 견해에 비판적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거래비용 이론은 유인 설계(incentive design)를 강조하는 재산권 이론이나 대리인 이론과 함께 효율성 분파(efficiency branch)로 분류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Williamson, 1985).<sup>3)</sup>

이상의 신제도학과 기업이론들은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이론에 의해 비로소 기업 자체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제도학과 경제학의 중요한 이론적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이론은 공통적으로 기업을 계약적 관계로 파악함에 따라 기업의 경쟁 전략 역시 효율적인 유인 체계 혹은 지배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로 국한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쟁 전략을 단지 주어진

3) 그러나 Williamson(1985)의 주장처럼, 계약 당사자들이 제한적으로만 합리적이기 때문에 모든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계약을 사전적으로 설계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사후적인 지배구조로서 기업이 필요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만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사전적으로 효율적인 지배 구조를 고안하는 것 역시 불가능할 것이다. 기업 내부의 사적 지배하에서는 효율적인 조직형태를 설계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획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거래비용 이론의 가정과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배구조가 설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역시 인정되어야만 한다.

자원의 배분이라는 정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제도학과 기업이론에서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시도, 즉 새로운 생산적 역량의 개발과 축적이라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이는 신제도학과 기업이론은 기업 그 자체에 대한 분석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략이론으로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서 Teece *et al.*(1994)과 Prahalad and Hamel(1990) 등은 경쟁 전략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최적 성장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과 자원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핵심 역량을 구축하는 것 간의 균형(balance)을 유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달성된다. 정태적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간과할 수 있는 반면에 기업의 핵심 역량을 혁신한다는 관점에서 동태적 효율성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적절한 핵심 역량이 개발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전략적 과제는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하에서 살펴볼 역량기반 관점의 특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 Ⅲ. 역량기반 이론의 핵심 개념과 분석 주제

자원기반 이론(resource-based theory, Wernerfelt, 1984), 동태적 역량이론(dynamic capability theory, Langlois, 1992), 지식기반 이론(knowledge-based theory, Demsetz, 1988) 등으로 지칭되기도 하는 역량기반 관점은 기업과 전략적 경영에 대한 현대의 이론들 내에 존재하는 일련의 연구경향을 지칭하며(Knudsen, 1996), 하나의 단일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sup>4)</sup> 이러한 사실은 기업의 핵심 역량의

4) 따라서 역량기반 이론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칭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역량기반 관점 내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Hodgson(1999)의 분류법에 따르면, 기업이론은 역량기반 관점과 계약적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에는 스미스(A. Smith)와 맑스(K. marx), 그리고 나이트(F. Knight), 펜로우즈(E. Penrose) 등의 기업이론

명확한 정의에 대한 이론적 합의 역시 도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 논자들마다 기업의 핵심 역량을 설명함에 있어서 다소 상이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드러난다.<sup>5)</sup>

핵심 역량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Selznick(1957)에서 비롯된다. 그에 따르면, 핵심 역량이란 한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특별히 잘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지칭한다. 그러나 보다 대중화된 정의는 '다양한 생산기술을 어떻게 조정하고 복합적인 기술의 흐름을 어떻게 통합하는가에 대한 조직에서의 집합적 학습'이라는 Prahalad and Hamel(1990)의 정의이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기업의 지식과 정보, 혹은 기업 문화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는 기업의 생산 집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산적 가치를 갖는다. 더구나 기업의 생산 활동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대개 암묵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과 정보는 조직의 구조 내에 체화되어 있다.<sup>6)</sup> 또한 어떤 조직의 문화는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조직의 문화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직의 문화가 그 조직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기업 문화 역시도 기업에게 생산적 가치를 지닌다.<sup>7)</sup>

이러한 정의는 핵심 역량이 단지 중간재 혹은 최종재를 생산하는 데에 응용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자원이나 그것들의 단순한 조합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핵심 역량은 생산요소 시장에서

과 진화적 기업이론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재산권 이론, 대리인 이론, 그리고 거래비용 이론 등의 신제도학과 기업이론이 포함된다.

- 5) 역량기반 이론이 불리고 있는 다양한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를 들어 각 이론들에서 기업의 competence는 capability, capacity 혹은 resources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hristensen(1996)은 기업의 핵심 역량과 능력, 그리고 자원을 정의하고 그 범주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시도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 6) 핵심 역량으로서의 이러한 정보와 지식은 Nelson and Winer(1982)의 '조직 메모리로서의 루틴(routine as organizational memory)'이라는 개념과 흡사하다.
- 7) 특히 Eriksen and Mikkelsen(1996)은 핵심 역량의 개발과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핵심 역량과 경쟁 우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을 '조직적 자본(organizational cap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생산적 지식과 정보는 전자의, 그리고 조직문화는 후자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획득될 수 있는 통상적인 자원들과는 구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한 생산적 지식은 기업의 생산 집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게는 중요한 가치를 갖지만 기업의 조직이나 루틴에 암묵적으로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획득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생산적 지식은 내부적으로 축적되어야만 한다. 핵심 역량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역량기반 관점이 기본적으로 기업의 내부적인 자원의 축적 과정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이론들의 다양한 명칭과 용어상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론들을 역량기반 관점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묶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기업의 경쟁적 지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들 이론 모두 기업의 외부적 조건보다는 내부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업 내부적으로 축적된 역량과 지식이 기업의 초과수익률이나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원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생산적 지식을 비롯한 기업의 핵심 역량이 내부적으로 축적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역량기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역량기반 관점의 이러한 이론적 과제는 기업의 '내생적 성장(endogenous growth)'과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로 표현된다. 첫째, 역량기반 관점은 기업의 내생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을 분석한다. 역량기반 관점에서 기업은 누적적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는 주체로 간주된다. 새로운 지식은 점진적으로 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 구조 내에 체화되어 미래의 지식 축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한다.

여기에서 기업의 성장 과정은 지식의 축적과 함께 기존 구조로부터 새로운 구조를 창조하는 경로 의존적(path-dependent) 과정으로 특징지어진다. 내부적으로 축적된 자원은 생산 과정에서 실질적인 투입물로 기능한다. 이 자원들은 연속적인 선택과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서 축적되기 때문에 그 축적 과정은 경로 의존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들의 생산적 기능을 통해서 기업은 생산물이나 생산 과정에서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다.

둘째, 역량기반 관점은 한 산업 내의 기업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정상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가라는 내생적 성장에 대한 분석과 달리 여기에서는 기존의 경쟁 우위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를 산업의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초과이윤이 장기적으로는 제거될 것이라는 표준적인 신고전파 이론에서의 설명과는 달리 기업의 경쟁 우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이상의 두 가지 주제는 “경쟁 우위가 어떻게 생겨나며 어떻게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자의 질문은 기업의 내생적 성장에 대한 문제인 반면에 후자의 질문은 산업 수준에서의 경쟁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 둘은 각각 상이한 이론적 전통 속에서 발전해왔다.<sup>8)</sup>

기업의 내생적 성장이론으로서의 역량기반 이론은 Penrose(1959)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기업을 ‘잠재적 생산적 기능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자원의 집합체(bundle of resources)’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기업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고유한 특성은 그 기업이 보유한 생산적 자원과 그 축적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업은 그러한 생산적 자원의 집합체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신고전파 기업이론에는 “누적적 변화로 귀결되는 내적인 발전과정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다(Penrose, 1959, p. 1)”라고 비판하면서 기업은 단지 비용곡선이나 수입곡선만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Penrose, 1959, p. 14). 따라서 그의 이론은 전통적인 균형 조건에 대한 분석보다는 기업이 생산적 자원을 축적함으로써 자신의 생산적 기회를 점차 확장시켜가는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업을 내생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는 생산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험을 통한 학습의 결과로서 생산적 지식이 축적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된다. 기업의 새로운 의사결정에는 자원이 소요되는데, 이때 유사한 문제에 반복적으로 직면하게 되면 기업은 그 문제들을 일상적으로(routinely)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업의 루틴에

8)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Knudsen(1996)을 참조할 수 있다.

암묵적 지식의 형태로 축적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희소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따라서 아직 루틴화되지 못한 다른 의사결정에 투여할 수 있게끔 자원에서 여력을 갖게 된다. 즉 기존의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루틴화함에 따라 기업은 인접 생산물 시장으로 보다 수익성 있게 배치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된다.<sup>9)</sup>

기업이 기존의 임무들을 지속적으로 루틴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산적 자원이 축적된다는 의미에서 그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표준적인 운영 절차와 루틴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축적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의 축적은 내부화 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정형화된 지식을 암묵적인 형식으로 조직의 루틴에 체화시킴으로써 축적된다. 즉 지식의 축적은 내부화 과정의 결과이다. 이러한 내부화 과정을 통한 지식의 축적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희소한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기업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축적된 기업의 생산적 지식과 역량이 기업의 생산적 기회를 확장시켜줌으로써 기업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역량기반 관점에서 내생적 성장이라는 주제가 기본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역량이 기업 내부에서 축적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라는 주제는 전통적인 균형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 주제는 내부적으로 축적된 기업의 생산적 지식과 역량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초과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혹은 이 경쟁 우위가 산업 내 기업 간의 경쟁에 따라 장기적으로 소멸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즉 핵심적인 논점은 기업 간 경쟁 관계의 본질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 분석에 기반하고 있는 전통적인 산업조직론에서 기업의 초과이윤은 진입장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역량기반 관점에서 초과이윤의 존재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역량상의 차이로 설명된다. 특히 Barney(1986), Lippman and Rumelt(1982), Rumelt(1984) 등은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

9)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내생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래비용 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균형이라는 의미에서의 기업의 최적 규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경쟁 우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개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적 자원으로서의 핵심 역량이 갖고 있는 이질성에 기인한다. 특히 Rumelt(1984)는 어떤 생산적 자원이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는 핵심 역량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원이 직접적으로 그 우위의 원천이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확실성, 즉 경쟁 우위와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 간에 '인과적 모호성(causal ambiguity)'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타 기업들이 그 초과이윤의 원천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그 초과이윤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원이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서의 핵심 역량이 되기 위해서는 특징적인 R&D 방식이나 마케팅 방식 등,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과 같이 어떤 자원의 활용과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차별적인 재화 혹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핵심 역량으로서의 어떤 생산적 자원에 의해서 경쟁 우위가 창출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도 그 자원은 통상적인 자원들과는 구분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우선 경쟁 우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원천이 되는 자원을 다른 기업이 모방하거나 다른 자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힘들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 일시적으로 초과이윤을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다른 경쟁 기업이 쉽게 모방하거나 유사한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러한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초과이윤은 조만간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현실에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심 역량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가 특허이다. 기업은 특허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디자인 등을 다른 기업들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이 경우 특허가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는 애초 그 기업이 보유한 핵심 역량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를 통해서 구축된 진입장벽은 기업의 외부적 요인이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이 확보한 경쟁 우위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특허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같은 생산적 역량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특허 자체는 기업의 경쟁우위의 본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특허가 비록 단기적으로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기업이 경쟁우위 혹은 초과이윤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본질적이지 않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해당 특허로 보호받던 기술이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로부터 발생한 초과이윤은 결국에는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일시적으로는 특허를 통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 기업이 그러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생산적 역량을 축적할 수 있어야만 한다.<sup>10)</sup> 그리고 역량기반 관점이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sup>11)</sup>

그런데 이러한 핵심 역량으로서의 생산적 자원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적이고 (idiosyncratic) 암묵적 지식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산요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고 내부적으로 축적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 축적은 기업의 고유한 경험에 기반한 누적적이고 경로 의존적 성격을 갖는다. 핵심 역량에 대한 모방과 대체의 어려움은 바로 이러한 성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sup>12)</sup> 결국 역량기반 관점은 내부적으로 축적된 기업의 핵심 역량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핵심 역량의 축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을 그 핵심적 과

10) 이에 비해서 전통적인 산업조직론에서 진입장벽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그 기업의 경쟁 우위를 결정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특허라는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이지 그 특허의 원천이 무엇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즉 전통적인 산업조직론에는 특허의 원천이 되는 기업의 생산적 역량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시장 지배력이 기업의 생산적 역량과는 무관하게 분석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특허라는 진입장벽은 여전히 기업의 외부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社 간의 특허 분쟁을 애플社의 전략 변화에 대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과거 애플社가 경쟁사의 자사 제품 모방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이를 계기로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을 수 있는 혁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Allworth, 2012). 그렇다면 애플社의 경쟁사에 대한 최근의 대응은 애플社가 혁신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전략의 변화는 오히려 애플社의 혁신 능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가능하다.

12) 특허 Lippman and Rumelt(1982)는 기업의 우월한 성과를 만들어 내는 자원을 모방하는 것이 힘들다는 가정하에서는 효율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균형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제로 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 우위가 기업이 보유한 핵심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기업의 전략은 이러한 핵심 역량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Porter(1980)가 기업의 경쟁 전략을 진입장벽의 구축과 같이 시장에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과 달리 역량기반 관점은 전략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존의 생산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의 새로운 생산적 지식의 축적과 더 효율적인 루틴의 구축과 혁신을 강조한다. 이는 역량기반 관점에서 기업의 전략적 과제는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일관성(coherence)라는 개념이 이러한 경쟁 전략에 대한 인식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한다(Dosi *et al.*, 1992; Teece *et al.*, 1994). 기업이 자신의 생산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활동과 새로운 활동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기업의 생산적 지식 기반은 파편화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들이 경쟁 전략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시장 지배력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산업 분석과 달리 역량기반 관점은 기업의 내부적 역량의 축적이라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신제도학과 기업이론들이 정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역량기반 관점은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의 균형, 즉 새로운 생산적 역량을 어떻게 축적하면서 기존의 역량들과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역량기반 관점은 기존의 경제이론들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경쟁 전략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역량기반 이론은 전략이론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경제학의 기업이론이 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량기반 관점의 성과를 경제학 내부로 적절하게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IV. 역량기반 관점과 진화적 관점의 통합

역량기반 관점은 하나의 단일한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형태로 이론화될 수 있다. 방법론적 차원에서 볼 때, 역량기반 이론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신고전파 균형 분석에 의존하는 정형적 이론(formal theory)이며, 다른 하나는 균형 분석에는 덜 의존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과정 지향적인 분석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평가적 이론(appreciative theory)이다(Foss, 1996).<sup>13)</sup>

예를 들어, Barney(1986)의 생산요소 시장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거시 경제학의 합리적 기대 이론과 효율적 금융시장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격이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요소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거나, 또는 기대가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기업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때 효율 시장 가설과 합리적 기대 가설의 균형에 대한 의미가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준거점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그의 분석은 균형 분석 방법론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Prahalad and Hamel(1990)에서는 균형이라는 개념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어찌 보면 이들은 핵심 역량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균형 분석, 나아가 경제학 자체의 분석에 그다지 의존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동학, 학습, 혁신과 과정이라는 문제가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경쟁 우위가 최초에 어떻게 생겨나는가의 문제보다는 기존의 우위가 지속되는 동태적 현상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양자의 차이는 단지 이론가들의 설명상의 편의 혹은 목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역량기반 이론에서 핵심적인, 경쟁 우위의 창출과 유지라는 주제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과 자원 축적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균형 분석 방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원 축적의 과정이 생산적 지식이나 조직 문화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원과 관련될 때 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13) 이는 본래 경제학이 이론화되는 방식에 따른 Nelson and Winter(1982)의 구분이다. 그러나 이는 역량기반 관점이 이론화되는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경로 의존성, 집합적 학습, 기업가 정신 등과 같은 개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는 균형 분석 방법에서는 쉽게 포착될 수 없는 개념들이다. 이 때문에 정형적인 역량기반 이론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자의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동태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이다. Winter(1995)에 따르면, “경영자의 과제는 정태적인 측면과 동태적인 측면 모두를 수반한다. 정태적인 측면은 단기적으로 준지대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자원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문제는 동태적 측면, 즉 기존 자원의 지위를 더 유리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기존의 전략 분석들을 보면, 정태적 측면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산업 분석이 그러하며, 신제도학과 이론의 전략적 개념 역시 정태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자원 축적의 동태적 과정, 혹은 더 일반적으로 경쟁 우위의 창출과 혁신이라는 문제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역량기반 관점을 이론화하는 데 있어서도 동태적 과정에 대한 분석이 정태적 측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 전략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역량기반 관점은 기업의 생산적 역량의 추적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학이야말로 이에 가장 유용한 분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즉 경제학은 기업의 생산적 역량의 추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역량기반 관점의 성과를 흡수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학에서의 기업이론이 기업의 경쟁 전략에 대한 이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학의 전략경영(strategic management) 분야는 역량기반 관점에 기초를 두고 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주로 경쟁 우위가 유지되는 이유를 해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기업이라는, 시장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업이 자원을 내부적으로 생산할 것인지 혹은 시장 계약을 통해서 조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예컨대 수직적 통합의 문제와 같이 기업의 생산 활동의 범위와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문제 역시 기업의 중요한 전

략적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전략이론은 이에 대해 해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는 역량기반 관점이 기업의 경쟁 전략에 대한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이론, 특히 기업이론에 의존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역으로 경제학에서의 기업이론은 역량기반 관점의 장점들을 흡수함으로써 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역량기반 관점의 이론화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역량기반 관점이 반드시 하나의 경제학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즉 역량기반 관점은 다양한 경제학, 예를 들어 전통적인 균형 분석에 의존할 수도 있는 반면에 거래비용 이론이나 진화주의 경제학과도 소통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역량기반 관점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다양한 기업이론이 역량기반 관점과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경제이론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량기반 관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기업이론들이 경쟁 전략이라는 연구주제에 대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이론적 다양성은 다른 한편으로는 역량기반 관점이 어떠한 경제이론과도 임의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진화주의 경제학과 균형 분석에 기초한 전통적 기업이론은 기본적인 방법론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견해에서도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량기반 관점은 이 둘 모두에 동시에 근거할 수 없다.

따라서 전략이론으로서의 역량기반 관점을 기업이론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선택이 불가피하다. 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그 선택의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역량기반 관점을 거래비용 이론과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동학에 대한 설명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어떠한 생산요소를 구매하고 어떠한 생산요소를 내부적으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래비용 이론 역시 전략이론으로서의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쟁 전략을 주어진 기업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을 뿐, 새로운 역량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 점에서 거래비용 이론은 전략이론으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업의 축적된 역량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적 자원의 전략적 이용가능성을 결정한다면, 경쟁 전략은 어떠한 역량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역량기반 이론이 상정하는, 내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비교우위라는 두 가지 주요 주제는 진화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잘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 즉 역량기반 관점과 진화주의적 관점의 통합을 통해서 기업이론의 전략이론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진화적 기업이론은 기업을 역사적 실체(historical entity)로 파악함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기업의 이질성이라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서로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이유는 개별 기업들이 처한 상이한 환경과 초기 부존자원에서의 차이, 그리고 상이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이질적 학습 루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Nelson and Winter(1982)의 진화적 기업이론은 기업을 여러 활동들을 어떻게 조직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특정적이고 암묵적인 지식을 내포하고 있는 루틴의 집합체로 개념화하고 있다. 더구나 기업의 생산적 지식은 내생적이고 경험적인 학습 과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진화적 기업이론은 기업을 역사적인 실체로 간주한다. 따라서 기업의 현재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적 역량의 축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즉 “설명되어야만 하는 누적적 변화의 과정은 행위 방식에서의 변화 과정인 것이다(Veblen, 1898).”

이에 비해서 전통적인 균형 분석에서 기업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은 주로 상이한 초기 부존 상태로 설명되고 있으며,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상이한 학습이라는 측면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신고전파 이론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적 지식에서의 변화는 전적으로 생산함수의 외생적 변화의 결과이다. 이는 기업이 고유한 학습 과정을 갖지 않는 비역사적 실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진화주의적 관점에서 기업은 고유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질적인 생산적 역량을 개발하고, 결과적으로 상이한 정체성을 갖는 존재인 반면에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동일한 산업 내의 기업들은 모두 생산

기술에 대한 동일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동일한 존재인 것이다.

또한 균형 분석에서 역사적 경험과 루틴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주어진,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실체로 간주된다. 이러한 견해에서 전략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배치하고 활용하는 문제가 되며, 자원의 축적이나 개발과 관련된 더 장기적인 전략적 문제는 포괄할 수 없다. 즉 전통적인 균형 분석에서 기업은 이미 이질적이지만 그 이질성의 원천은 주어져 있는 불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한계는 게임이론을 이용한 산업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게임이론에서 전략은 향후 게임의 모든 단계에서 다른 행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최적 대응에 대한 계산을 수반한다. 이는 게임의 참여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의 균형은 시작부터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참여자들은 동일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동일한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핵심 역량에서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애당초 실패한 전략이나 잘못된 예상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새로운 변화에 직면할 때 새로운 생산적 자원으로서의 지식과 새로운 학습 능력의 축적은 사실상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서 기업의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학습이라는 측면은 진화적 기업이론에서는 핵심적인 변수로 취급된다. 때로는 오히려 진화주의 경제이론에서 기업들의 초기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되지만 개별 기업들의 고유한 경험과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과정에서 각 기업들 간의 이질성은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진화적 기업이론은 역량기반 관점이 전제하고 있는 기업의 이질성이라는 문제를 기업의 고유한 경험과 누적적 인과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진화적 기업이론과 역량기반 이론 모두 기업들 간의 근본적인 이질성을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생산적 지식의 담지자로서 그러한 지식의 축적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양자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양자 모두에서 개별 기업은 지식의 부존 상태에 있어서 서로 구분되며, 또한 상이한 루틴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경로 의존적인 학습 과정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기업의

경쟁 전략에서의 차이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이후의 기업 간 경쟁 우위에서의 차이를 낳는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고유한 경험에 따라 내부적으로 축적된 생산적 지식에 따라 생산물의 선택이나 다각화의 방향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진화적 기업이론은 학습에 대한 동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생산적 지식의 축적 과정은 진화적 기업이론의 적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이라는 진화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여기에서 적응적 학습이란 제한적으로 합리적인 개별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서의 새로운 루틴을 개발하고 보다 효율적인 루틴을 탐색하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지칭한다.

기업의 생산적 지식은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과정에 의해서 축적된다. 시장 환경에서의 변화에 의해서 기존의 루틴이 더 이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못할 때에 기업은 새로운 루틴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고, 더 경쟁력 있는 새로운 루틴이 시행착오를 거쳐 기업의 조직적 학습 과정에 의해서 발견된다. 그러한 혁신적인 루틴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업의 학습 능력의 개선을 수반한다. 그리고 이는 기업의 이용가능한 생산적 지식의 확장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서의 생산적 지식의 축적 과정은 다름 아닌 진화 메커니즘으로서의 적응적 학습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극대화 합리성과 완전정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 신고전파 기업이론에서는 경제주체의 학습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습이라는 행위 자체는 이미 경제주체가 모든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보와 지식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학습은 정보를 취득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어떤 정보가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우선 해석되어야만 한다.<sup>14)</sup> 그리고 해석을 위해서는 이미 해석적 틀(interpretative framework)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한다.<sup>15)</sup> 따라서 학습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축적은 새로운 정보의 취득뿐만

14) Böhm(1994)에 의하면 지식은 그 자체로 이미 특정 공동체에 체화되어 있는 하나의 제도로서 파악되어야 하며 정보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15) 그러나 정보의 주관적 해석이라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식과 기대에 대한 과도한 주관주의적 관점 때문에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론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처럼 정보와 지식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획득하는 데에 사용되는 개념과 이론은 순수하게 주관적일 수는

아니라 정보 해석을 포함한 일련의 학습 능력(learning capacity)의 개선  
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sup>16)</sup>

Hodgson(1999)에 의하면, 이 점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에는 하나의 역  
설이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은 한편으로는 희소한 자원을  
가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방대  
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계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히려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의 능력 역시 기업의 생산  
적 자원으로 간주되어야만 하며, 동시에 그러한 능력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즉 기업의 학습 능력 역시 희소한 생산적 자원이기는 하지만, 이  
는 오히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과정에서 개선되고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적 지식은 기업의 개별 구성원들에게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지식은 단지 개별 구성원들의 지식으로  
환원될 수 없다. 특히 루틴에 체화되어 있는 조직의 지식은 그 암묵적 성  
격 때문에 조직이 처한 상황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조직적 맥락  
(organizational context) 하에서만 의미를 갖는다.<sup>17)</sup> 이러한 의미에서  
“조직적 지식은 개인들의 지식과 상호작용하지만 그것은 개별 지식의 합보  
다 크며 맥락 의존적(context dependent)이다(Hodgson, 1999, p.  
256).”

따라서 조직적 학습은 구성원들의 공통된 경험, 즉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된 환경과 의사소통 체계 등 조직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직

---

없으며, 인식과정은 언어와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분명히 사회적 과정이  
다(Hodgson, 1988, p. 7). 따라서 인식의 사회적 과정을 인정한다면, 진화주의적  
관점을 취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주관주의적 오류를 범함으로써 이론화를 불가능  
하게 만든다는 비판으로 귀결될 필요는 없다.

- 16) 이 점에서는 불완전정보 이론 역시 동일한 한계를 갖고 있다. 불완전정보 이론은  
전통적인 완전정보라는 가정을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극대화 합리성에 대한 가정  
은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불완전정보 이론 역시 정보와 지식을 동일한 것으로 간  
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학습 능력에서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불완전정보 이론에는 학습과 정에 대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 17) 따라서 조직적 지식의 보유주체는 조직의 개별 구성원이 아닌 기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적 메모리로서의 루틴에 대한 Nelson and Winter(1982)의 강조  
는 이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적 학습이란 바로 조직의 루틴을 혁신하는 일련의 동태적 과정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여기에는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획득한 정보를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체계를 혁신하고,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고 이를 배치하는 능력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

학습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전략은 단지 주어진 기업의 자원을 배치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발견과 학습이라는 동태적 과정 속에서 새로운 목표와 과제를 정의하는 문제라고 이해될 수 있다. 즉 전략경영의 기본적인 임무는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 혹은 가능성을 식별하고 어떠한 행동이 최선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Loasby, 1991, p. 472).

역량기반 관점에서 기업의 생산적 자원의 집합체로 간주되며, 기업 고유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축적된 생산적 역량의 차이가 기업의 이질성을 규정한다. 예컨대 기업이 보유한 생산적 자원의 투입능력이 어떠한지에 따라 기업의 다각화 방향 및 수준이 결정되며, 또한 기업의 조직문화 등 루틴에 체화된 생산적 지식에 따라 기업의 조직구조와 관리체계가 달라진다. 이처럼 기업이 어떠한 생산적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지가 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결정하며, 그 특성은 다시 기존 생산적 역량의 활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량의 축적 방향을 결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의 생산적 역량이 그 기업의 이용가능한 전략적 공간을 정의한다.

따라서 기업이론이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집합을 정의하는 생산적 역량의 축적 메커니즘을 해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새로운 역량의 축적에는 필연적으로 조직적 학습이 수반되며, 그러한 학습은 항상 기업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에 의존하는 적응적 과정을 통하여 진행된다. 즉 기업의 생산적 역량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탐색과 혁신 과정을 통해서 축적되며, 그러한 축적 과정이 다른 아닌 적응적 학습이라는 진화적 과정인 것이다. 결국 기업의 경쟁 전략은 생산적 자원과 역량의 축적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면, 그 축적의 메커니즘은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진화적 관점은 역사적 실체로서의 기업의 이질성과 그에 따른 고유한 학습과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쟁우위가 어떻게 창출되고 유지될 수 있는

가라는, 역량기반 관점의 전략이론으로서의 주제는 진화적 기업이론에서 개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V. 요약 및 결론

통상적으로 기업의 전략은 경영학의 연구주제로 여겨져 온 반면 지금까지 경제학과 전략연구 분야의 교류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에 대한 보다 유용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학에 기초해야만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적 자원이 축적되고 시장에서의 경쟁적 지위가 유지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전략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현실의 기업의 내적 작동 원리에 대한 해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량기반 관점이 경제학에 적극적으로 흡수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즉 역량기반 관점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내생적 성장이라는 관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 기초한 기업에 대한 분석이 경제학과 전략연구 분야에서의 보다 유용한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역량기반 관점은 기업의 내생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라는 두 가지 주제를 핵심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록 역량기반 관점이 단일한 이론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논의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은 내부적으로 축적된 기업의 핵심 역량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축적된 역량이 기업들의 경쟁우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경쟁 전략이란 기업의 경쟁적 우위를 창출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경쟁 전략의 범위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역량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전략에 대한 분석은 기업의 핵심 역량과 무관하게 분석될 수 없다. 역량기반 관점이 기업의 경쟁 전략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략이론으로서의 역량기반 관점의 중요한 이론적 과제는 그러

한 생산적 자원이 내부적으로 축적되는 메커니즘과 경쟁 우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역량기반 이론은 진화주의적 관점에 기초해야만 한다.

진화적 기업이론에서 기업은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상이한 학습 루틴을 갖고 있다고 간주된다. 즉 진화적 기업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고유한 경험을 지닌 역사적 실체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 속에서 이질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기업은 고유한 학습 경로를 따라 특정한 생산적 지식을 축적한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기업의 경쟁 지위와 전략적 차이를 결정한다.

진화적 기업이론이 학습에 대한 동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전략이론이 진화주의적 관점에 근거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어떤 정보가 생산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해석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습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축적은 단지 새로운 정보의 취득뿐만 아니라 취득된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을 포함한 학습 능력의 개선을 수반한다. 이는 학습 능력 역시 기업의 생산적 자원의 일부로 간주되어야만 하며, 또한 학습 능력은 단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희소하지만 동시에 학습을 통해서 개선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적 지식은 단지 개별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으로 환원될 수 없다. 더구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은 그 조직이 속한 상황과는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맥락 의존적이다. 따라서 조직적 학습은 조직의 루틴의 혁신을 포함하는 일련의 동태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적 학습 과정은 다름 아닌 적응적 학습 과정을 따른다. 즉 제한적으로 합리적인 개별 기업들이 보다 우월한 루틴에 대한 탐색과 선별을 통해서 기존 루틴에서의 혁신을 가져오는 일련의 조직적 학습 과정이 새로운 생산적 자원으로서의 핵심 역량을 축적하는 메커니즘인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생산적 역량의 축적 과정과 그에 따른 경쟁 우위의 창출 및 유지 과정은 다름 아닌 진화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진화적 기업이론은 생산적 역량의 축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전략이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역량기반 관점과 진화적 관점의 통합을 통해서 기업의 전략적 과제는 단지 주어진 자원을 배

치하는 문제만이 아닌 조직적 학습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자원을 축적하는, 즉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 간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투고 일자: 2012. 10. 5. 심사 및 수정 일자: 2012. 11. 19. 게재 확정 일자: 2012. 11. 20.

◆ 참고문헌 ◆

- Alchian, Armen A., "Uncertainty, Evolution and Economic Theo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58, 1950, pp.211-222.
- \_\_\_\_\_, 1987, "Poverty Rights," *The New Palgrave*, Vol. 3, pp.1031-1034.
- Alchian, Armen A. and Harold Demsetz,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1972, pp.777-795.
- Bain, J. S., *Barriers to New Compet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 Barney, J. B., "Strategic Factor Market: Expectations, Luck, and Business Strategy," *Management Science*, Vol. 32, 1986, pp.1231-1241.
- Böhm, Stephan, "Hayek and Knowledge: Some Question Marks," in Colonna, M., Hagemann, H. and O. F. Hamouda(eds. 1994) *Capitalism, Socialism and Knowledge: The Economics of Hayek*, Vol. II, Edward Elgar, 1994, pp.160-177.
- Christensen, Jens F., "Analysing the Technology Base of the Firm: a Multi Dimensional Resource and Competence Perspective," in Foss, N. J. and C. Knudsen(eds. 1996), *Towards a Competence Theory of the Firm*, Routledge, 1996, pp.111-132.
- Coase, Ronald Harry,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Vol. 4, 1937, pp.386-405.
- Demsetz, Harold, "The Theory of the Firm Revisited,"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 4, 1988, pp.141-162.
- Dosi, G., Teece, D. and S. G. Winter, "Towards a Theory of Corporate

- Coherence: Preliminary Remark,” in Dosi, G., Gianetti, R. and P. A. Toninelli(eds. 1992), *Technology and Enterprise in a Historical Perspective*,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Eriksen, Bo and Jesper Mikkelsen, “Competitive Advantage and the Concept of Core Competence,” in Foss, N. J. and C. Knudsen (eds. 1996), *Towards a Competence Theory of the Firm*, Routledge, 1996, pp.54-74.
- Fama, Eugene, “Agency Problems and the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8, 1980, pp.288-307.
- Foss, Nicolai J., “Whither the Competence Perspective?,” in Foss, N. J. and C. Knudsen(eds. 1996), *Towards a Competence Theory of the Firm*, Routledge, 1996, pp.175-200.
- \_\_\_\_\_, “Research in the Strategic Theory of the Firm: ‘Isolationism’ and ‘Integrationism’,”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 36, No. 6, 1999, pp.725-755.
- Georgious, P., “The Goal Paradigm and Notes towards a Counter Paradigm,”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18, 1973, pp.291-310.
- Hodgson, Geoffrey M., *Economics and Institutions: A Manifesto for a Modern Institutional Economics*, Polity Press, 1988.
- \_\_\_\_\_, *Evolution and Institution : On Evolutionary Economics and the Evolution of Economics*, Edward Elgar, 1999.
- Jensen, Michael and William Meckling,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3, 1976, pp.305-360.
- Knudsen, Christian, “Theories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and Leadership,” in C.A. Montgomey(ed. 1995), *Resource-based and Evolutionary Theories of the Firm*,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5, pp.179-217.
- \_\_\_\_\_, “The Competence Perspective: A Historical View,” in Foss, N. J. and C. Knudsen(eds. 1996), *Towards a Competence Theory of the Firm*, Routledge, 1996, pp.13-37.
- Langlois, Richard N., “Transaction Cost Economics in Real Time,”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ol. 1, 1992, pp.99-127.

- Lippman, S. A. and R. P. Rumelt, "Uncertain Imitability: An Analysis of Interfirm Differences in Efficiency under Competi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 13, No. 2, 1982, pp.428-438.
- Loasby, Brian J., *Equilibrium and Evolution: An Exploration of Connecting Principles in Economics*, Manchester University of Press, 1991.
- Nelson, Richard R. and Sidney G. Winter,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Penrose, Edith, T.,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 Porter, M., *Competitive Strategy*, New York: Free Press, 1980.
- Prahalad C.K. and G. Hamel,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Vol. 68, No. 3, 1990, pp.79-91.
- Rumelt, Richard P., "Towards a Strategic Theory of the Firm," *Competitive Strategy Management*, edited by R.B. Lamb, Printice-Hall, 1984.
- Rumelt, R. P., Schendel, D. E., and D. J. Teece(eds.), *Fundamental Issues in Strategy*, Ha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4.
- Selznick, Philip, *Leadership in Administration: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arper and Row, 1957.
- Teece, D., J., Rumelt, R. P., Dosi, G., and S. Winter, "Understanding Corporate Coherence: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23, 1994, pp.1-30.
- Veblen, T., "Why Is Economics Not an Evolutionary Sci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 No. 4, 1898, pp.373-397.
- Wernerfelt, Birger, "A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5, No. 2, 1984, pp.171-180.
- Williamson, Oliver E.,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irms, Markets, Relational Contracting*, New York : The Free Press, 1985.
- \_\_\_\_\_, "Strategizing, Economizing, and Economic Organiz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7, 1991,

pp.159-187.

Winter, Sidney G., "Knowledge and Competence as Strategic Assets," *The Competitive Challenge: Strategy for Industrial Innovation and Renewal*, edited by D. J. Teece, New York: Harper & Row, 1987, pp. 159-184.

\_\_\_\_\_, "Four Rs of Profitability: Rents, Resources, Routines, and Replication," in C. A. Montgomery(ed.), *Resource-based and Evolutionary Approaches to the Firm*, Boston: Kluwer, 1995, pp.147-178.

Allworth, James, "Who Cares If Samsung Copied Apple?," *Harvard Business Review*, <http://blogs.hbr.org>, 2012.

# The Theory of the Firm as the Competitive Strategy Theory: A Synthesis of Competence-based Perspective with Evolutionary Perspective

Pil Kyoo Jo\*

## Abstract

The competence-based theory should be incorporated into economics based on evolutionary perspective in order that economic theory can be said to be important in the field of the study of the competitive strategy of firm. The competence-based theory analyzes the competitive strategy of firm in the view of endogenous growth and the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And since the evolutionary theory of the firm regards firms as historical entities, it can explain heterogeneity among the firms and the learning process. That is, we can explain the process of the productive competences and the creation and the maintenance of the competitive advantages through the synthesis of competence-based perspective and evolutionary perspective. In this view the strategic challenge of firms can be understood as the balance between static and dynamic efficiency.

**KRF Classification:** B030107

**Key Words:** competitive strategy, evolutionary theory of the firm, competence-based perspective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anbat National University. e-mail: jopk@hanbat.ac.kr